

‘우승 확률 90%’ 호랑이 군단, 대구서 마침표 찍나

KS 2연승… 25~26일 3·4차전
KIA 라우어·네일 선발진 가동
삼성 레예스·원태인으로 맞붙
방망이 화력에 승부 향방 달려



한국시리즈 1차전과
2차전을 싸붙이하며 통
합 우승 9부 능선을 넘
은 호랑이 군단이 적지

로 향한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안방에서 연승을 달린 만큼 4전 전승으로 V12 도전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KIA타이거즈는 오는 25일과 26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3차전과 4차전을 치른다. 2연승을 달린 KIA가 3차전과 4차전도 싸붙이할 경우 적지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된다.

앞서 KIA는 사실상 더블헤더로 치러진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이기며 우승 확률 90%를 확보했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가져간 팀이 정상에 오른 경우는 20회 중 18회에 이른다.

가을비라는 변수가 KIA에게는 단비가 된 모양새다. 지난 21일 지연 개시된 1차전은 0-1로 뒤진 6회초 무사 1·2루에서 강우로 중단됐고, 끝내 재개되지 못하며 포스트시즌 사상 최초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다.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승리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어 22일에는 그라운드 사정과 비 예보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과 2차전이 모두 우천순연됐고, 23일 열린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에서 전상현과 광도규, 정해영 등 불펜진의 역투를 발판 삼아 5-1 역전승을 거둔 뒤 이어진 2차전에서는 타선 폭발에 힘입어 8-3 승리를 거뒀다.

KIA와 삼성은 우천순연으로 휴식을 취하며 3차전과 4차전에서 최정예 선발진 출격이 가능해졌다. 3차전은 에릭 라우어와 데니 레예스의 선발 맞대결이 성사됐고, 4차전은 제임스 네일과 원태인의 에이스 맞대결이 예고된 상황이다.

최정예 선발진이 연달아 마운드에 오르

는 만큼 승부의 향방은 방망이의 화력에 달려 있다. 라이온즈파크의 경우 옥타곤 형태의 팔각형으로 설계돼 홈플레이트와 좌우 중간 펜스의 거리가 107m 밖에 되지 않는 등 타자 친화적 구장이어서 투수를 공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미 앞선 플레이오프에서도 삼성은 르

원 디아즈와 김영웅, 김현근, 구자욱이 홈런 여덟 개를 합작하는 등 화끈한 화력으로 안방에서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챙기며 타자 친화적 구장의 이점을 확실히 가져갔다.

하지만 KIA의 타선은 강력하다. 1차전과 2차전에서 안타 17개와 사사구 6개에 상대 실책 3개를 얻어내며 13득점을 생산했고 선발 출장한 모든 야수들이 타점 또는 득점의 맛을 봤다.

또 KIA는 삼성과 정규시즌 일곱 차례 원정 경기에서 최형우와 김도영, 나성범, 한준수, 김태균, 소크라테스 브리토, 박찬호, 최원준이 13개의 홈런을 합작했다. 이미 타선이 정규시즌의 감각을 회복한 만큼 충분히 대포를 생산할 수 있다.

라우어와 네일의 뒤를 책임질 투수진도 패조의 컨디션을 구축했다. 앞서 1차전과 2차전에서 마운드에 오른 이준영과 광도규, 장현식, 전상현, 정해영이 7.2이닝을 단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이범호 감독은 체력전을 예고했다. 이 감독은 2차전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1차전보다 2차전이 훨씬 나았던 것 같다”면서도 “이제는 한 경기가 열 경기를 치른 느낌일 것이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잘 챙겨가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욕심 대신 희생’ 2연승 이끈 김도영 땅볼 ‘2년 차 막내’ 광도규, KS 폭풍의 중심에 섰다

2차전 1회말 결승타 생산
2회말에는 첫 KS 홈런포

KIA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첫 공격부터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데는 김도영의 희생이 컸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작전이었는 데 이 희생 하나가 삼성라이온즈를 완벽히 무너뜨렸다.

KIA는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8-3으로 이겼다. 앞서 서스펜디드 1차전에서 5-1 역전승을 거뒀던 KIA는 삼성을 상대로 2승을 선점하며 V12에 2승만을 남겨두게 됐다.

KIA가 이날 큰 격차로 삼성을 제압할 수 있었던 데는 경기 초반부터 대량 득점으로 빅이닝을 이끌어 낸 것이 컸다. 1회말 공격에서 김도영의 땅볼로 선취점을 뽑은 뒤 최형우의 적시타와 김선빈의 적시 2루타, 이우성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며 일찌감치 5-0으로 달아났다.

이범호 감독 역시 경기 직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도영의 2회초 홈런보다 1회초 땅볼로 타점을 올리고 주자를 진루시킨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2차전이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젊은 선수가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줬다.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한 것 같다”고 칭찬했다.

김도영은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오늘은 날씨가 좋았고 완벽한 날이었다. 비장한 마음이었었고 자신감도 많았다”며 “무엇보다 광주에서 2연승을 거둘 수 있어 기쁘다. 많은 팬분들 앞에서 중요한 경기를 2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2차전 2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월 솔로포를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연승으로 보답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1차전에서 3타수 1안타 1볼넷 1도루 1타점을 기록했던 김도영은 이날 땅볼로 득점과 진루를 만들며 물고기를 튼 뒤 홈런포까지 가동했다. 생애 첫 한국시리즈임이 믿기지 않는 활약이었다.

그는 “전력분석했을 때 공의 움직임이 치기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다. 첫 타석에서는 운 좋게 1·2루에서 2·3루 기회가 와서 미리 준비했던 대로 땅볼을 만들기 위한 타격을 했다”며 “홈런은 점수 차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시리즈 첫 홈런이라 기분이 더 좋았고 더 격하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1·2차전에서 2이닝 퍼펙트
좌완 불펜 0순위 자원 우뚝
“모든 경기 던질 준비 완료”

“Hey, come on let us. Running through the storm. Sky is the limit. We march and break the wall. (우리 함께 폭풍우를 뚫고 달리자. 한계는 없어. 우리는 벽을 깨고 나아갈 거야.)”- WOODZ(우즈)의 ‘Dirt on my leather’ 중에서.

폭풍우와도 같은 위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프로 2년 차, KIA타이거즈에서 이번 한국시리즈 엔트리 막내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등장곡에 걸맞은 배경과 활약을 보여준 광도규였다.

광도규는 지난 23일 오후 4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재개된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 0-1로 뒤진 7회초 2사 2루에서 구원 등판해 1.1이닝을 막아내며 승리 투수가 됐다.

이어 오후 6시30분 열린 2차전에서는 7-2로 앞선 8회초 1사 1루에서 마운드에 올라 0.2이닝을 소화하며 리드를 지켜냈다. 두 경기에 모두 올라 2이닝을 일체의 출루 없이 퍼펙트로 막아낸 것.

광도규는 이날 2차전이 종료된 후 인터뷰를 통해 “생각보다 긴장이 별로 안 됐다. 외부적인 방해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 공한 개 한 개에 더 집중하려 했다”며 “한국시리즈나 더블헤더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 했다. 다른 경기와 똑같은 평범한 마음가짐으로 평소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도규는 이날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



KIA타이거즈 광도규가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2차전 8회초 수비를 삼자범퇴로 막아낸 뒤 관중석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뉴스스

첫 투수 후보군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다음 위기 상황이었던 7회초에서 광도규를 택했고, 그는 르원 디아즈를 루킹 삼구 삼진으로 잡은 뒤 펄쩍 뛰어올랐다. 또 8회초에는 박병호에게 플라이를 유도하며 삼자범퇴를 만든 뒤 관중석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는 “(전)상현이 형이 6회초를 잘 막아주면서 저도 뒤에서 흐름을 따라 잘 던질 수 있었다”며 “세리머니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다. 투 아웃에서 뜬공이 나오면 타구를 예측해서 미리 더그아웃으로 가는 습관이 있는데 맞았을 때부터 플라이로 느껴져서 어린애처럼 해맑게 뛰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광도규가 이날 두 경기를 연투하며 위력을 펼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등장곡도 도움을 줬다. 항상 등장곡을 들으며 마인드를 컨트롤했던 그가 이날은 평소보다 더 길게 올려 퍼진 리듬을 들으며 자신감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었다.

그는 “진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 타자들이 정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수들은 자기들이 던지는 이닝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오늘은 등장곡을 길게 틀어줬던 부분도 승리 요소가 됐다. 어떤 상황에서 올라가도 자신 있고, 위기 상황에서 막았을 때 더 재밌으니 3차전과 4차전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